

네온컬러를 활용한 “시각문화미술교육(VCAE)”

“Visual Culture Art Education” Utilizing Neon Color

이나레, 정경철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

Na-Rye Lee(pinkfunk@dreamwiz.com), Kyung-Chul Jeong(jkc1199@hnu.kr)

요약

21C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TV나 영화, 잡지,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나 영상물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시대가 바뀌고 무한한 정보의 공유와 기계의 발전으로 인해 유행과 사상이 빠르게 전달되고 있으며, 좀 더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주위에는 마치 공기처럼 특별한 존재감 없이 인간의 식별능력을 넘어선 수많은 색(컬러)이 있다. 이러한 컬러는 시각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그 시대의 트렌드(trend)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게 된다. 바로 이 점에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네온컬러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선행 연구에서 컬러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네온컬러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네온컬러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와 같이 시각문화 속에서의 컬러의 중요성과 그 심리를 파악하며 네온컬러의 특성과 시각문화가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내고 그것을 어떻게 미술교육에 응용하여 실연(實演)할 것인가를 연구 하였다.

■ 중심어 : | 네온컬러 | 디자인 | 시각문화미술교육(VCAE) |

Abstract

For us who live in the 21 century, a variety of media and videos such as TV, movies, magazines, internet, etc. have now become indispensable entities. Because of changing age, unlimited sharing of information, and development of machines, fashion and ideas are rapidly conveyed and there is also a tendency to seek after more sense based and stimulating things. Around us, there are innumerable colors which do not seem to have any special presence like the air and go beyond human ability to identify them. Such colors exert direct influence upon the visual culture and most rapidly reflect that age's trend. It is precisely from this perspective that the importance of neon colors, which have recently received the spotlight, have emerged in a magnified way. Yet, although much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colors by earlier studies, there has been no research on neon colors and as such, I felt the need for a study of neon col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and psychology of colors within the visual culture, discover whether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neon colors and the visual culture, and seek ways to demonstrate it by applying it to art education.

■ keyword : | Neon Color | Design | Visual Culture Art Education |

* 이 논문은 2010년도 한남대학교 교비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

접수번호 : #110104-003

심사완료일 : 2011년 01월 31일

접수일자 : 2011년 01월 04일

교신저자 : 정경철, e-mail : jkc1199@hnu.kr

I. 서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C는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시각적 요소들에 의해 많은 것이 좌지우지 되고 있다. 그렇게 시각적으로 주목을 받을 만한 디자인들과 더불어 명시성(明視性) 높은 컬러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중 괄목할 만한 것이 네온컬러(Neon Color)의 등장이다. 네온컬러는 1960년대, 디자이너 파코라반이 주장한 퓨처리즘(futurism)을 통해 패션에 등장 하였는데 근래에 들어 메이크업, 소품에 까지 사용되어 유명 연예인 뿐 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각광 받는 컬러 아이템이 되었다.

또한 우리는 매일 매일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시각문화(Visual Culture)의 여러 종류를 접하며 산다. TV, 영화, 잡지, 만화, 컴퓨터와 같은 매체 뿐 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모든 사물이나 문화적인 것들이 시각문화에 속한다. 이러한 시각문화는 도처에 존재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시각적인 것이기 때문에 컬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시대의 트렌드(trend)를 가장 빠르게 반영한다. 바로 이 점에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네온컬러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선행 연구에서 컬러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네온컬러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이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한 네온컬러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시각문화 속에서의 컬러의 중요성과 그 심리를 파악하며 네온컬러의 특성과 시각문화가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내고, 그것을 어떻게 미술교육에 응용하여 실연(實演)할 것인가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여 시각문화미술교육(VCAE)에 대한 지도방향을 모색하였다.

첫째, 컬러에 대한 기본 개념과 심리, 네온컬러의 배경과 네온컬러를 활용한 디자인 사례에 대한 내용과 관련된 논문, 학술자료, 도서 등을 참고하여 조사한다.

둘째, 21세기 시각문화와 네온컬러의 상호관계 및 시각문화미술교육(VCAE)으로의 연결성에 대해 고찰을 한다.

셋째, 네온컬러를 활용한 디자인 작품 사례와 네온컬러를 활용한 미술과 수업의 교육적 의의를 알아본다.

넷째, 미적 체험, 표현, 감상 부분으로 나누어 3가지 수업주제를 가지고 시각문화미술교육(VCAE)에 대한 교수-학습을 모색한다.

II. 네온컬러의 이론적 배경

1. 컬러의 개념과 심리

1.1 컬러의 개념

컬러란 '빛깔'이라고도 하며, 빛이 물체에 비출 때 얻어지는 감각현상을 의미한다. 형태, 크기, 질감, 명암, 공간 등과 함께 인간이 느끼는 시각적 요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그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의미와 효과가 주어지게 되는데, 다양한 매체와 시각적 요소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컬러가 주는 효과는 더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요하네스 이텐(Johannes Itten)은 그의 대표적 미술교육학 저서인 「색채의 예술」에서 “색은 우리의 의식과는 상관없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이다”라는 견해를 피력한다. 긍정적 방식이든 부정적 방식이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색은 항상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며, 우리가 색을 의식적으로 인지하면, 우리 시대의 확실한 기본 분위기를 원형적 흐름으로 인식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된다[1].

1.2 컬러의 심리

색채심리는 ‘색이 상징하는 심리’와 ‘색이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된다. 먼저 전자는 각자의 색이 상징하는 심리 상태, 즉 심리를 말해주는 학문적 측면으로서 과거 여러 학자들을 통해 연구되어 왔다. 후자는 각자의 색이 우리의 마음에 주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으로, 심리적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 색을 통해 표현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과정은 두 가지 측면 모두를 고려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2]. 컬러 이론에 따르면 ‘본태성 컬러 이론’이라는 게 있다. 태어나서 최초로 접하게 되는 컬러가 평생 무의식에 잠재된다는 것이 그 이론의 요점이다. 유난히 한 색만 고집하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색만 접했을 확률이 크며 성격도 그 색을 많이 따라간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모든 색으로부터 가장 순수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 모든 색을 접하고 경험하게 해야 한다. 그 다음 스스로의 감각으로 취사선택하면서 감각을 익혀 가는 것이다[3].

그럼 우선 색이 상징하는 심리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분홍색은 ‘행복한 꿈을 이야기하는 마음의 색’으로 ‘여성성’, ‘소녀’, ‘사랑스럽다’ 등 주로 부드럽고 상냥한 이미지를 주는 색이다. 또, 빨간색은 일반적으로 강한 느낌을 주는 색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움직이는 원초적 에너지’를 나타낸다. 노란색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희망을 표현하는 마음’을 나타내는데 미국의 심리학자 알슬리와 헤트윅의 연구에 따르면 ‘유아 단계에 머물고 싶은 의존심이나 행복감의 표현’이라고 한다. 주황색은 ‘생명력을 불러일으키는 개방적 심리’를 가지고 있고 초록색은 ‘감정의 균형을 통한 안식’을 주는 색이다. 파란색은 ‘내면으로 향하는 구심적 심리’를 상징하는 색으로 조용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이미지로 나타나며 보라색은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는 신비의 색’을 나타낸다. 그밖에 무채색은 ‘자신을 나타내고 싶지 않은 마음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무지개 색은 ‘다양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각각의 단색이 뜻하는 상징적 심리 상태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양한 색으로 표현된 심리는 과연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을까? 각 색의 상징적 의미에 치중하는 단편적 연구로는 이처럼 다양한 색 표현에 담긴 심리를 밝힐 수 없다. 따라서 더욱 넓은 시야에서 복합적인 의미를 밝히는 심리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색채심리 연구는 다양하고 자유롭게 표현된 색채를 통해 표현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과정이다. 즉 색과 인간의 마음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가는 것으로[2] 그 색의 강점과 약점, 강화시키는 측면과 축소시키는 측면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4].

2. 네온컬러의 배경과 특성

네온컬러는 형광(fluorescent)색과 비슷한 말로, 네온 사인처럼 푸르고 강력한 빛을 내는, 명도 100%에 가까운 색이다. 1960년대, 디자이너 파코라반이 주장한 퓨처리즘(futurism)을 통해 패션에 등장한 네온컬러는 80년대에는 스포츠웨어와 스트리트 패션에 주로 쓰였다면 최근엔 좀 더 고급스럽고 미래적인 느낌으로 다시 태어났다.

뉴욕, 런던, 파리 등의 2008 S/S 컬렉션에서 채도가 낮은 캔디 컬러에 형광 빛을 더한 듯 한 네오 네온(neo neon)컬러의 등장도 시선을 끌었다. 안나수이, 타쿰, 디젤 등 뉴욕의 디자이너들은 알록달록한 네온컬러를 포인트로 활용해 경쾌한 룩을 선보였고, 라코스테는 쇼의 피날레에 네온 피케(pique) 셔츠를 대거 등장시키기도 했다. 바네사 부르노는 네온컬러에 물을 탄 듯 묽은 파스텔 톤으로 화사하고도 편안한 컬러감을 보여주었다[6].

사실 패션 분야에선 소품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니키 힐튼, 패리스 힐튼, 리한나 같은 영 트랜드 세터부터 사라 제시카 파커, 카일리 미노그같은 중년 아이돌까지 네온컬러 가방이나 구두를 착용했다. 지미 추, 펜디, 크리스티앙 루부탱 같은 명품 브랜드에서 앞 다퉈 네온컬러를 선보였는데 고급스럽게 차려입은 옷에 네온컬러 소품은 결코 유치하지 않다. 셀렘처럼 소품으로 승부하려면 옷은 검은색, 회색 같은 모노톤 위주로 어둡게 입는 것이 좋고, 옷 중 하나를 네온컬러로 해도 마찬가지로 다른 부위는 어둡게 해야 한다[5].

3. 네온컬러를 활용한 디자인과 그 시각적 효과

네온 컬러는 소위 ‘형광’이라고도 불리는 색상계열로, 옐로, 그린, 핑크 등이 기본이다. 눈부시게 밝고 활동적인 느낌을 주는 게 특징인데[7], 몇 가지 디자인과 그 시각적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1



그림 2

먼저 [그림 1]을 보면 디자인은 클래식하지만 네온컬러를 사용함으로써 분위기가 180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네온컬러를 활용한 디자인을 할 때 이렇게 클래식하거나 노멀한 디자인에 컬러로 포인트를 주는 것이 훨씬 더 세련됨을 더할 수 있다. 또, [그림 2]를 보면 색은 주황색, 노란 색으로 따뜻한 계열에 속하지만 네온컬러를 사용함으로써 훨씬 더 시원하고 활동적인 느낌으로 여름 샌들의 기능을 돋보이게 하였다.



그림 3

마지막으로, [그림 3]을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디자인에 색상 또한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브라운계통의 가방인데 네온컬러로 포인트를 줌으로써 너무나도 트렌디하고 세련된 작품이 완성이 되었다.

이처럼 디자인과 재질, 또는 상품의 특성이나 계절에 상관없이 네온컬러를 활용함으로써 그 시각적인 효과는 배가되고 어떤 디자인이든 포인트 역할을 하여 트렌디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강조할 수 있게 된다.

III. 시각문화미술교육(VCAE)과 네온컬러의 관계적 의미

1. 시각문화미술교육(VCAE)의 개념과 특성

우리는 계속적으로 확장일로에 있는 시각문화(Visual Culture)한가운데 살고 있다. TV, 잡지표지, 영화, 연예인들의 의상이나 메이크업, 만화, 컴퓨터, 티셔츠, 백화점, 패스트푸드점, 스포츠 등 어린이나 청소년들에 의해서 열광적으로 소비되는 시각 문화적 표현이나 사물을 통해서 전통적 교실활동이나 실제들이 대체되기도 한다. 이러한 독특한 형태의 시각문화는 도처에 존재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교육의 효과도 지닌다[11].

시각문화에 있어서 트렌드(trend)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컬러가 이를 가장 잘 표현해 준다고 할 수 있는데 네온컬러는 이러한 시대적인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컬러 중 하나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미술교육과 연관 지어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고민에서 시작되어 시각문화를 미술의 영역으로 포함시키고 좀 더 학생 개개인의 문화에 접근하려는 의도를 가진 시도들이 미술교육에서 태동하고 있는 데 시각문화미술교육(Visual Culture Art Education : VCAE)이 바로 그것이다[11].

문자에 의하지 않고 색채, 도형 등 시각에 호소하는 문화를 미술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즉 오늘날에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회화, 조각, 공예를 넘어 도시 공간과 건축, 조경, 인테리어 디자인, 사진과 만화, 패션과 광고, 텔레비전과 비디오, DVD를 포함한 각종 영상물, 인터넷, 그래픽 디자인과 제품 디자인 등을 포함한 것으로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문화 현상을 미술 교과에 도입하여 이러한 시각문화를 미술교과에서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을 시각문화 미술교육(VCAE)이라고 한다.

그 배경은 포스트모더니즘 논쟁이 정치적 담화, 사회적 상호교류, 문화 정체성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데에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시각미술의 개념에도 영향을 미쳐 시각미술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처럼 시각문화도 팽창되었다. 미술교육이 미술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미술영역의 확장에 따라 미술교육의 개념과 범위도 함께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 포스트 모던시대

의 시각문화의 다양성은 교육이론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것은 객관주의적 관점에서 의미의 해석을 중요시하는 구성주의로의 변화이다. 현대의 많은 이론들과 미술의 실제에서, 미학과 의미는 불가분의 관계이고, 재미있는 해석은 권장되어야 한다. 포스트 모던시대의 미술가들은 미술의 요소나 원리의 형식주의적 사용을 거부하고 심플(상징)을 즐겨 사용하며 다양하고 확장된 사회적 의미를 담으려고 노력한다. 그러한 사회적 배경(context)이 제거된다면 회화는 캔버스 위의 그림에 불과할 것이다. 사회적 배경과 함께 그림은 미술작품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술작품의 사회적 배경은 미술작품의 부분이고, 미술을 연구할 가치가 있는 대상이 되도록 한다. 지금까지 미술품에 대한 감상자와 작품의 사회적 배경은 우리 커리큘럼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포스트 모던시대에서는 작품과 감상자의 사회적 배경을 중요시 하고 있다.

시각문화미술교육(VCAE)의 특성으로는.

첫째, 시각문화미술교육(VCAE)은 작품제작과 비평을 순환으로 한다. 작품 활동을 통하여 미술에 대해 배우고, 미술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배우며, 자신들에 대하여 독특한 방법으로 탐구할 기회를 갖는 방식을 취한다. 그리고 작품제작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들에 대한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서 비평적 질문과 개인이나 단체의 이슈를 결합한다. 동시에 학생들은 이전의 미술수업에서 탐구되었던 것보다 훨씬 확대되고 사회적으로 자각된 문화적 이슈를 작품에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시각문화미술교육(VCAE)은 다문화적이다. 글로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들 자신이 문화적 성향으로 작품의 의미를 형성 짓고, 작품의 압력에 저항하고, 작품을 이해하는 다양한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셋째, 시각문화미술교육(VCAE)은 생활 이미지의 학습이다. 시각문화미술교육에서 다루는 이미지는 텔레비전의 평면적 디지털 화면과 인터넷의 이미지 등으로 전통적인 물기 있는 물감이나 찰흙 같은 물질과의 작업과는 다르다.

넷째, 시각문화미술교육(VCAE)은 미적 가치와 사회적 이슈(가치)를 함께 탐구한다. 미학에서는 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구분하지 않고 사회의 가치(이슈)를

포함한다. 제도화된 미술은 가치, 신념, 태도 등을 다룬다. 만약 미술수업에서 가치, 신념, 태도들이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수업은 가치 있는 미술수업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다[8].

2. 21C 시각문화와 네온컬러의 상호관계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오감을 통해 얻는 정보 가운데 80% 이상을 시각에 의존하고 있다. 자의견 타의견 설 틈 없이 제공되는 방대한 양의 시각정보 중에서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취사(取捨)선택하기 위하여 색채라는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 주위에는 마치 공기처럼 특별한 존재감 없이 인간의 식별능력을 넘어선 수많은 색이 있다. 흑백영화나 사진이 향수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이미 색의 역할에 익숙해진 우리는 정보를 전달하는 다양한 매체들이 흑백으로만 표시되는 상황을 감히 상상할 수 없다[9].

21C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TV나 영화, 잡지,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나 영상물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시대가 바뀌고 무한한 정보의 공유와 기계의 발전으로 유행과 사상이 빠르게 전달되고 있으며, 좀 더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그러한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디자인들과 더불어 명시성(明視性) 높은 컬러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네온컬러(Neon Color)이다. 그렇게 주목을 받는 네온컬러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사회적 부류는 역시 유명 연예인이다.



그림 4



그림 5

[그림 4]와 [그림 5]는 유명 연예인인 2NE1과 빅뱅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네온컬러 패션을 선보이고 있다. 옷 뿐 만 아니라 신발, 액세서리, 가방, 벨트 등 소품의

색상도 전부 네온컬러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6

[그림 6]은 헐리웃 스타들이다. 루이비통에서 나온 그레피티 라인 백과 레깅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렇듯 네온컬러 일색인 요즘 트렌드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유명 연예인을 우리는 여러 다양한 매체들과 영상물을 통해 접하게 되는 것이다.

IV. 네온컬러를 활용한 시각문화미술교육 (VCAE)의 모색

1. 네온컬러를 활용한 디자인 작품 사례

화려한 색의 부활과 더불어 네온컬러가 강세이다. 90년대에 유행했던 네온컬러가 다시 등장했는데 90년대의 약간은 촌스러운 색으로만 생각했던 네온컬러가 대담하고 멋진 디자인으로 재탄생되어 세련되고 감각을 리드하는 색으로 나타났다. 여기 대표적인 네온컬러의 디자인 작품들을 정리해 보았다.



그림 7
(Tote : Fuscia Neoprene)



그림 8
(Michael perry patent Leather Pump)

[그림 7]은 네온핑크색에 검정색으로 데이핑을 해줌으로써 너무 들떠 보일 수 있는 색을 좀 더 안정적으로 잡아주었고 대비효과에 의해서 네온컬러도 더욱더 더 보이게 하였다.



그림 9. (Toryburch clutch bag)

[그림 8]은 딥블루색에 네온옐로우색 원형무늬와 뒷굽을 사용함으로써 보색대비를 극대화시켰고 에나멜소재의 반짝거리는 가죽으로 마감하여 한층 더 경쾌한 느낌을 주었다.

[그림 9]는 전반적인 컬러가 살짝 무거운 느낌이지만 핑크와 오렌지색이 섞인 듯 한 네온컬러 스타드 장식을 사용함으로써 화려하고 컬러풀한 봄기운과 잘 어울리는 클러치백이 되었다.



그림 10



그림 11



그림 12

그림 10. (Nixon polyurethane watch)

그림 11. (Nooka Zub 38 watch)

그림 12. (Pierre Hardy colorblock satin hill)

[그림 10]과 [그림 11]은 강렬한 네온그린과 네온오렌지,블루색상을 사용한 시계로서 공통적으로 우레탄소재의 밴드를 사용하여 훨씬 더 시원해 보이는 계절감을 보여주었고 네온컬러의 발색을 부각시켜 주었다.

[그림 12]는 이름그대로 샌들을 컬러로 조각내어 구

조적인 느낌을 만들어 내었다. 여름 샌들이다 보니 계절감을 주기 위해 새틴소재를 사용하였고 특히 발목부분에 네온블루색상을 사용함으로써 그 느낌을 더하였다.

2. 네온컬러를 활용한 미술과 수업의 교육적 의의

미술 교과 교육은 주위의 시각적 대상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를 세심하게 관찰하거나 바로 꿰뚫어 봄으로써 그 본질과 미적 특성을 발견하고 이해하며 즐기는 심미적 태도를 길러 준다. 또한, 학습자 개인의 자유로운 상상력, 독창적인 생각, 개성적인 표현력 등을 바탕으로 시각문화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미술적 능력과 태도는 학습자의 감성적, 지성적, 정서적 측면이 종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미술을 통하여 체험하고 표현하고 감상하는 유기적인 활동을 통해 효과적으로 길러질 수 있다. 따라서 미술 교육은 미적 체험, 표현, 감상 활동이 상호 연계된 유기적인 학습 경험을 통하여 개성적, 창의적 표현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또한, 시각문화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판단하고 수용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과 심미적인 태도를 길러 미술 문화의 계승과 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10].

네온컬러는 이러한 미술 교육의 의의와 목적에 맞게 지금 현재의 트렌드와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고, 매일매일 접하고 있는 시각문화 속에서의 컬러에 대한 가치를 학습자 스스로가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네온컬러를 활용한 시각문화미술교육(VCAE)의 교수-학습 방법을 통하여 미적 체험, 표현, 감상 활동을 유기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창의적 표현 능력을 기를 수 있고 배색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게 되어 색과 색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 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그 교육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3. 네온컬러를 활용한 미술과 교수-학습 모색

본 연구에서는 미술영역 즉, 미적 체험, 표현, 감상 부

분으로 나누어 3가지 수업주제를 가지고 교수-학습을 모색하여 보았다.

먼저, 미적 체험의 방법으로 영상물 상영을 수업내용으로 정하였다. 요즘 아이들은 온갖 시각문화와 대중매체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빠르게 그것을 받아들인다. 점점 더 자극적이고 흥미위주인 수업을 갈구하는 아이들에게 TV만 틀면 나오는 연예인들의 옷차림은 단연 관심거리일 것이다. 그런 심리를 반영하여 네온컬러 위주의 연예인 패션과 2009,2010 S/S 컬렉션 동영상 등을 상영하고 그 느낌과 생각에 대하여 토론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계획함으로써 관계를 인식하고 비판적 안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두 번째, 표현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직접 네온컬러를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주제를 정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표현해 봄으로써,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주도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 계획하였다. 먼저 한 가지 방법은 [그림 13]과 [그림 14]와 같이 ‘네온컬러+네온컬러’의 표현 방법으로 형형색색의 네온컬러를 사용하여 흰색의 바탕위에 표현을 해봄으로써 그 느낌을 알아보는 수업이다.



그림 13



그림 14

또 하나의 방법은 ‘네온컬러+무채색’의 표현 방법으로 [그림 15]와 [그림 16]과 같이 하나의 네온컬러와 명도, 채도가 가장 낮은 무채색을 배색해 봄으로써 네온컬러의 특성을 더욱 더 부각시켜 네온컬러가 어떤 역할을 하는 지 알아볼 수 있는 수업이다.

이 영역의 지도는 표현 매체와 방법에 대한 감각과

기능, 표현 과정을 스스로 계획하고 수행해 나가는 조직적인 능력을 기르고 다른 영역과 관련짓는 적용 능력과 태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적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그림 15



그림 16

마지막 세 번째, 감상 영역은 그렇게 표현한 작품들을 가지고 발표, 토론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네온컬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비평적인 언어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토대로 미술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V. 결론

시각문화미술교육(VCAE)의 대표적 이론가인 던컴(Duncum)은 “비평과 작품제작은 함께 공존하며 공생의 관계로서 서로 보완한다”고 주장한다. 비평적 이해와 권한 부여는 시각문화미술교육(VCAE)의 기본적 목표이고 여느 예술가들이 그러하듯이 학생들이 자신들에 대한 의미를 찾는 미술작품을 통해서 가장 잘 발달된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은 이전의 미술 수업에서 탐구되었던 것보다 훨씬 확대되고 사회적으로 자각된 문화적 실행에 대한 문제를 탐구하도록 작품제작을 활용할 수 있다.

시각문화미술교육(VCAE)의 출발점은 미술세계에 대한 명문화되고 총괄적 규정이 아니라 학생들 자신들의 문화경험이다. 더불어 자연적인 이미지의 학습과 미적 가치와 사회적 이슈에 대한 탐구, 다문화 교육의 특징을 가진다[11].

본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시각문화미술교육(VCAE)

의 의의와 목적에 맞춰 네온컬러를 활용함으로써 다음의 세 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매일 접하고 있는 시각문화 속에서의 컬러에 대한 가치를 학습자 스스로가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네온컬러를 활용한 시각문화미술교육(VCAE)의 교수-학습 방법을 통하여 미적 체험, 표현, 감상 활동을 유기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창의적 표현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셋째, 배색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게 되어 색과 색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 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차후 연구에서는, 네온컬러를 활용한 시각문화미술교육(VCAE) 프로그램의 실제 및 운영방침을 세워 색채교육의 하나로서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트렌드와 감성을 적용하여 다양한 미술교육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Ingrid Riedel, *색의 신비*, 학지사, 2006.
- [2] 백낙선, *마음으로 읽는 색채심리*, 미진사, 2010.
- [3] 김민경, *튀는 색깔이 뜨는 인생을 만든다*, 명진출판, p.73, 1999.
- [4] 하워드 선/도로시 선, *내 삶에 색을 입히자*, 예경, p.77, 2003.
- [5] <http://www.istyle24.com/Zine/ZineView.aspx?BoardNo=3575>
- [6] http://www.design.co.kr/section/news_detail.html?info_id=42874&category=00000000002&pageno=1
- [7] <http://biz.herald.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0730000632>
- [8] 이화식, *미술교육, 참교육과미래*, 2008.
- [9] 윤혜림, *색채심리 마케팅과 배색이론*, 도서출판 국제, 2008.
- [10]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79호에 따른 *중학교 교*

육과정 해설(IV)-미술, 교육과학기술부, 2007.

[11] <http://blog.naver.com/eyaki28?Redirect=Log&logNo=110026121950>

저 자 소 개

정 경 철(Kyung-Chul Jeong)

정회원



- 1996년 2월 : 한남대학교 대학원 미술학석사 졸업
- 2007년 8월 : 단국대학교 대학원 미술학박사(Ph.D) 취득
- 1995년 ~ 2011년 : 개인전 13회 (서울, 대전, 중국)와 국내외 초

대 및 기획전 참여

- 2009년 3월 ~ 현재 :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 미술작품 분석 및 평가, 미술교육, 미술사, 동양미술 및 화론

이 나 레(Na-Rye Lee)

준회원



- 2010년 ~ 현재 :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미술교육 전공) 과정중
- 2005년 ~ 2011년 : 국내외 초대 및 기획전 다수참여

<관심분야> : 미술작품 분석 및 평가, 미술교육, 미술사, 디자인, 색채학